

친환경 마케팅 두 얼굴 '그린워싱'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는 지난 여름의 폭염과 이번 겨울의 한파를 통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후와 환경 문제가 현재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신들의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라거나 자신들은 지구와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경영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주의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선전,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표면적으로만 이용해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해 왔다. 해당 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환경이나 국제 규범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해당 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고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해야 한다는 '실증성'의 원칙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과정성'의 원칙 ▲그 대상이 제품이

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돼야 하는 '구체성'의 원칙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위 각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10월 친환경 경영활동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서 별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경영방침이나 목표 등의 경영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마찬가지로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상당성, 자발성, 완전성, 관련성, 실증성 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표시·광고가 그린워싱에 해당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모두가 '친환경'에 주목하는 시대이지만, IR이나 마케팅 쪽 담당자라면 그린워싱으로 평가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대한민국의 2050년대 올림픽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최가온과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 눈밭을 종횡무진 누볐다. 설상종목 변방국의 경이로운 점프에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가 놀랐다. 둘 다 고교생인 게 더욱 놀랍다.

KLPGA에 버금가는 세대의 탄생을 예고한 대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드키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역시 이번 무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체육 부문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인

구구조 탓이다. 스노보드 말고도 우리가 출전하는 각 종목에서 이 같은 성적·순위가 계속 유지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이 대한체육회 등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일할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 듯 대회에서 뭘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인구구조. 20~30년 후의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 열에 아홉이 15세 이상이다. 14세 이하 유소년을 제외한 인구 비중은 올해 9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유소년(13.7%)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층(13.2%)보다 컸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노인보다 많았다는 얘기가.

지금은 노인 수가 아이들의 2배다. 올해

1월 집계로 14세 이하는 10.2%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은 21.3%까지 치솟았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중이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관련 비교에서 최근 일본마저 제친 한국은 지구촌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은(비중 기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 주 후엔 월드컵이 열린다. 몇 달 후엔 FIFA 월드컵이 열린다. 십수 년, 수십 년 뒤에도 개최될 터. 물론 메달 획득이, 16강 진출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넘치는데 현역 선수는 턱없이 모자란 대한민국...스포츠 포함,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세종=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3일 (음 1월 7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눈앞의 욕심보다는 주위 자문을 듣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실수가 있더라도 대범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조그마한 일에 더욱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 소** 49년생 자신의 생각을 믿는게 좋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실수를 풀어주고 배려해 주세요. 73년생 처음엔 어렵지만 노력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62년생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돕는 게 좋습니다. 86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 토끼** 51년생 때를 기다리며 먼저 힘을 기르세요. 63년생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75년생 무리되더라도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87년생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갑니다.
- 용**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 뱀** 53년생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89년생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 말** 5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66년생 혼자 하기보다는 협력이 필요 합니다. 78년생 뒷사람의 말을 들으면 갑니다.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키고 성과가 있습니다.
- 양** 55년생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67년생 인기를 얻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79년생 재물운과 이성운 모두 좋습니다. 91년생 혼자 차지하면 사색을 얻고 나눌수록 이득이 더 늘어납니다.
- 원숭이** 56년생 주위의 말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8년생 평탄할 때 일수록 노력이 더 필요 합니다. 80년생 선택을 해야한다면 동남쪽이 더 갑니다. 92년생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 닭** 57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81년생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일이 좋습니다. 93년생 지금은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 개**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갑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갈갈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 돼지** 59년생 지금은 신중함보다는 자신감이 더 필요합니다. 71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양보 하는게 좋습니다. 83년생 어려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95년생 친구나 지인과 만나면 즐겁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재물의 신

필자의 한 지인은 재물은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그는 자신에게는 검약하되 남에게는 먼저 밥값이나 커피값을 낸다. 만나는 모임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챙겨서 나간다. 그는 나누어야 커진다는 소신도 지녔지만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라는 신념도 있지만 아낀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믿기에, 죽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일부는 그렇게라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믿는다. 또한, 자식에게 남겨준들 그 재산을 잘 지킨다는 확신도 없기에 부모의 넉넉한 베품이 덕으로 회향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딴겠는가. 인명은 재천이지만 수명은 예측치가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해 재물은 사주상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물은, 즉 재성(財性)이 뚜렷한 사람들에게는 착실한 준비를 강조하고 싶다.

재성이 땅에 있다면 부동산투자를, 화기운이 강하면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림 같은 자산투자를 한다. 특이한 것은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는 겸행하기가 운기의 성격상 쉽지 않다. 부동산 부자는 웬만해서 주식 투자를 즐기지 않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횡재운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과 같은 횡재운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도 같은 재운이기 때문이다. 횡재(橫財)는 '뜻밖'에 얻은 재물'이라는 한자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로 놓인 나무처럼 재물이 오히려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혹여 꿈꾸던 한 방이 이루어졌을 때, 일부는 그동안 알던 지인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 행운을 두루두루 나눌 때 운명의 시샘은 방향을 튼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5			
				5	4				
3								9	
	4		5		1			3	
9	3						5	1	
1			6		8			4	
7									2
			9		1				
		9		8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8	9	2	8	2	6	1	9
9	8	2	8	1	6	7	9	2
2	6	1	9	9	7	8	2	9
2	7	6	8	8	9	9	2	1
1	9	8	2	7	9	6	8	6
8	9	2	1	6	5	2	7	8
6	2	7	9	2	8	1	9	8
8	2	8	7	9	1	2	6	9
9	1	9	6	2	8	8	2	7

9	6	8	2	1	2	7	8	9
9	8	2	8	9	7	6	1	2
7	2	1	9	8	6	2	8	9
8	1	7	6	9	8	9	2	2
2	2	9	1	8	9	6	8	7
8	9	6	7	2	2	8	9	1
6	9	9	8	7	1	2	2	8
2	8	2	9	6	5	1	7	8
1	7	8	2	2	8	9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신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